

군대 귀신 자수하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죄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죄사슬에 매였어도 죄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 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렸던 자 곧 군대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개역, 마가복음 5:1~20]

성

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 놔주었습니다. 군대 귀신 자수하다? 붙여놓고 제가 생각해봐도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무슨 의미로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왜 귀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제목을 붙였을까요?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마태가 기록한,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자수하다 무슨 말일까요?

군대 귀신 예수 앞에 자수하다.

비슷합니다만 조금 정돈합시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잘 안 잡히는 범죄자를 공개해서 잡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언젠가 한번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방송이 준비되고 방송이 나간다는 것이 소문이 나자 이 범죄자는 이미 자수를 했습니다 하고 방송을 하니 시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놈 자수했다더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에 대한 감탄이지요? 텔레비전의 위력이 그만큼 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군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살펴보면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단병력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 군대 귀신이 자수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앞에 아예 포기하고 스스로 자수하고 나올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던지 간에 그 속에서 귀신을 자랑하면 안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했더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다윗이 위대하더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랑했다가 다윗이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 것 훔쳐 보고 사고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설명해 내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설교 제목

을 이렇게 붙이더라도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설교이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라 하면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명절기간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문맥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 수요일 저녁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날 설교하면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혼자서 앓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잘 못해도 고민이 되는데 설교가 웬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혼자서 앓았는데 여러분께서 설교를 참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느끼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우리는 자꾸 밭을 생각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 중에 극히 일부는 길가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국은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널리널리 확장이 되고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나 하면 바로 뒤이어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와요. 씨를 심어놓으면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는 저절로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지만 이것이 자라면 엄청난 나무가 됩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네 가지 비유는 전부 한꺼번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와 연결지어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너희들은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고 4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에서 의미를 찾아내면 오해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4장 맨 마지막 기사와 5장 전체 이야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나오고,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과 12년된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지니신 분이더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를 만났더라는 서론격의 말씀이고 본론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지요?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면 곤란할 텐데요?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아이에게 있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질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릴 때 많이 들은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 귀신은 어떤 귀신이죠?

달걀 귀신.

우리 어릴 때 달걀 귀신은 주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달걀 귀신은 없습니다. 이사가는 집에 뭐 하러 간다고 하죠? 지신 밟으러 가지요? 지신이 뭐예요?

땅 귀신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귀신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유의 귀신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흔히 물어요. 귀신이 있냐고 묻거든 없다고 그러세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몽당 빗자루 귀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귀신 있냐고 물을 때는 주로 그런 걸 물어요. 그럴 때는 없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줄개가 되는 그런 귀신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귀신들은 좋아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덤, 산, 조금 뒤쪽으로 가면 무덤 말고 하나 있지요?

물

물로 가기 전에 돼지로 가야지요. 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이지요?

부정한 짐승.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방법 중에는 돼지고기 먹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고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분이 그걸 읽으면서 자기 같으면 얼른 먹고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것은 그만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런 곳을 좋아하는 것이죠. 지저분한 곳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곳이 있으면 들어가서 더럽혀 놓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 부르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귀신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 중에서도 귀신 부르기 놀이가 있습니다. 교실에 둘러 앉아서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난 삼아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림도 보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럴 겁니다. 일본에서 그려진 만화들 보면 귀신을 등장시키고 아이들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같은 것도 다 귀신입니다. 친근감 있게 그려 놓았지만 다 귀신 종류입니다. 어쨌든 귀신들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특징은 쇠고랑을 깨뜨렸다고 했지요?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도 끊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힘센 것은 복입니까? 힘만 가지고는 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힘이 약하면 사고를 안칠 것인데 힘이 있기 때문에 사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가는 자동차가 때로는 위험합니다.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으면 잘 나가는 자동차일수록 위험하지요. 잘 나가는 것만큼 성능 좋은 브레이크와 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귀신은 힘은 좋지만 그 힘으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질러대지요. 힘은 있지만 하는 것이 이 모양일 때 그 힘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교회를 허물거나 형제를 넘어뜨리면 귀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교회를 허물거나 성도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전부 돼지 때 속으로 들어갔지요. 돼지 때 속에 넣어 달라고 해서 돼지 때 속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 돼지와 다정하게 살아야 하는데 물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능력 있고 힘 있지만 하는 것은 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 특징은 멀리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뛰어 와서 예수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 이 귀신은 본 적도 없는 예수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걸 알아채고 뛰어 옵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며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무당이나 귀신들린 자들이 이런 영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믿지 마십시오. 귀신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행하여진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안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여러 군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라고 합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도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여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확인하라고 합니다. 왜요? 귀신도 영적존재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귀신은 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것 말고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괴롭히려고 오셨을까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괴롭히려고 온 게 맞네요. 예수님께서

괴롭히려고 오셨으면 마귀는 꼼짝말고 괴롭힘을 당해야지 별 수 있나요? 자기가 들어 있는 사람에게서 이미 나오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미리 자수하러 쫓아 내려오는 거지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자기를 괴롭히려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귀신이 항변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인데 이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당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멸하러 오셨습니까? 다른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항의했던 것 중에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날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지요? 심판 날 때까지는 귀신들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지요? 그런 귀신들에게도 일정한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들이 알아요. 아직은 그들이 쫓겨나야 하고 결박되어야 할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박하거나 귀신들을 꼼짝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귀신들을 쫓아내기만 하셨습니다. 그런 걸 알고 이 귀신들은 뛰어와서 예수님께 자수부터 먼저하고 제발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구함을 다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귀신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제 친구중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집에만 가면 발 씻겨 달라고 발을 내민대요. 할머니가 다 된 어머니가 세수대야에 물 떠와 자식 발을 씻겨주고 그런다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는 자식 발 씻기는 걸 즐거워 하고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 발을 내민 것 뿐이랍니다. 우리가 불 때는 말이 안되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징그럽다고 치우라고 할 텐데 그 집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쫓겨나야 되지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안해요. 5장에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 없을까요? 그 앞의 어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우리가 죽겠사오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꾸중을 듣고 제자들이 돌아서서 뭐라고 했지요? 도대체 저 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다 순종을 하느냐 했던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복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귀신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잘 아는데도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고난을 당한 대상을 고맙게도 '우리'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사탄은?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천사중 일부가 타락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종들고 섬기는 역할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잘 알아도 나중에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예수님이 물어내야 되지 않아요? 남의 멀쩡한 돼지를, 2000마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이 돼지 2000마리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개 사단이나 군단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단체로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돼지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돼지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사탄은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웁이 고난 받은 것을 보면 그런 예가 있지요. 온 세상을 둘러보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웁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자랑을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웁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사탄이 전권을 가지고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불만이 많은 거지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지 않았지만 너가 들어 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 아마 귀신이 한마디 하긴 했을 겁니다.

나오라니까 나가겠지만 어디로 갈까요?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일단 나와라.

여기서 나가서 제자들에게 들어갈까요?

맞아 죽을려고?

아니면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 들어갈까요?

그것도 안된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너 알아서 해!

돼지 떼에게로 갈까요?

알아서 해!

귀신이 어디로 가던 그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또 이동을 할 겁니다. 어디로?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어디로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두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귀신들은 어딘가 들어잡니다.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왜? 적어도 결박당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다닐 거니까요. 귀신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갔겠지만 제자들도 모르고 돼지치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이 그런 연유입니다.

결국 이 귀신은 이름을 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귀신이었다가 돼지 귀신, 그 다음에는 물 귀신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귀신 마음대로 이름 바꿔 가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예수님더러 물어내라고 말할 것은 못 되지만 예수님께서 피해를 보기는 본 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여러 모습들 중에서 우리 모습하고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내 모습이 이곳에 등장하는 귀신과 사람 중에서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 귀신과 닮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것과 힘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닮았다 싶은 뭐가 있나요. 귀신들린 사람도 우리와 닮은 바 없습니다. 왜? 귀신들려 있는 사람은 적어도 주인이 귀신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귀신들린 사람입니다.

얼마 후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후 그 사람의 모습이 자신을 닮았습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려 할 때 따라가려 한 이 사람이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래도 귀신들린 사람보다 제자들과 닮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

습니다. 예수님께 꾸중듣고 풀이 죽어 할 말도 없고 그냥 옆에서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만 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이 제자들. 어쩌면 우리 모습이 이 제자들을 많이 닮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나온 예수님을 닮았어. 그런 분이 많으면 더욱 좋겠지요.

여기 나오는 삶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을 닮은 사람은 능력은 있고 힘은 있지만 분란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것 자체가 반드시 복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능력도 열심도 다 있는데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마 사탄을 많이 닮은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귀신들린 사람, 자기의 의사는 아니지만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인데 적어도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우리 속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래 모습이 그러했건 안했건 예수님께 공홀하심을 입어서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따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은혜를 받았습시다. 예수님이 떠나려 할 때에 함께 가겠습니다 할 때에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데에서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킬 때 당부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은 네 친족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 나오는 지명이 거라사라고 하고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유대인의 지명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고 음역하는데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말입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이야기가 1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왜? 10명이 천연두를 피하여 숨어지내면서 심심하니까 10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야기를 하나씩 했습니다. 그것을 10번 돌았거든요. 10명이 10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목이 데카메론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아마 폴리스라고 불려질만한 도시가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넓은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 지역이므로 돼지를 그렇게 길렀던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하니 남아서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당부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던 말이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유대인들 같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돼지 2000마리, 저 사람 때문에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만한 복이나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더 큰 복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돼지 2000마리까지 갈 것 없습니다. 줄여서 돼지 100마리에 우리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은 없을까요?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큰 돈 때문에 팔아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에 넘어져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돈, 쥐꼬리만한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흐려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수 몇 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라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재산 전부를 잃어버리더라도 예수가 내게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잃어버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만 내게 있으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충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대체로 40대예요. 주로 빛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걸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긴 한데 그

[2001.01.31] 군대 귀신 자수하다 (마가복음 5:1-20)

렇다고 돈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만 합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와의 구원에 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